

늘 사용해 왔던 기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

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

데이비드 에저턴 지음

제2차세계대전 이 '말(馬)의 전쟁' 이었다고 하면, 믿 을 수 있겠는가. 말 은 독일 군대의 기 초 수송수단이었 다. 독일의 재무장 은 말의 대량 구매 를 뜻했다. 1939년 독일군대는 말 59만 필을 갖추고, 남은 300만 필을 나라 곳곳에 남겨뒀다.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는 말이 62만 5000 필이 동원됐고, 1945년에는 독일군 의 말은 120만 필에 달했다. 이는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. 책이 처음 등장하



콘돔 - 연간 120억개 판매

자전거 - 자동차보다 숫자 많아

석탄 - 19세기보다 많이 생산

새 기술이 더 우월하다는 건 잘못

낡고 오래된 중요성 잊지 말아야

고 전투기, 전함 등의 신식 무기가 동원된 전쟁에 과거의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는 말 이 가장 많이 쓰였다는 뜻이다. 데이비드 에저턴의 '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'는 구시대의 것으로 치부됐던 오 래된 것들을 가지고 기술의 역사를 다시 썼다.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과 거의 기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, 또한 과거의 기술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

는 것이다. 늘 사용해 왔던 기술은 쉽게 사 라지지 않는다. 잊혀졌다가 먼 훗날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. 저자는 이를 석탄, 자전거, 콘돔을 통해 설명했다. 콘돔은 성장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기술의 사례다. 과거의 기술 이 새로운 기술에 밀려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시 사용된다. 1980년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알려지면서 콘돔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했다. 1981년 연간 49억 개에서 1990년 중반에는 연간 120억 개로 증가했다. 자전거도 마찬가지다. 흔히 자전거-오 토바이-자동차 등으로 기술이 진화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전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, 세계 각국의 자전 거 도로를 늘리고 있다. 전 세계에서 생산 되는 자전거의 수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 다.

석탄은 19세기보다 오늘날 더 많이 생산 되고 있다. 석유가 주요 에너지가 된 이후 석탄이 없어졌다는 생각은 틀린 셈이다. 새로운 기술이 그 앞의 것보다 우월하다 는 가정도 맞지 않다. 저자는 우리가 미래를 보느라 과거·현 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경고한다. 새로운 것, 최초 의 사용, 혁신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의 기 술사에 의문을 제기한다. 동시에 주목받 지 못했던 낡고 오래된 것들을 통한 새로 운 관점의 기술사를 주장한다. 실제, 부유한 세계에서 '오래된' 기술 의 재도입은 자주 있는 일이다. 1950년대 와 1960년대 케이블 텔레비전은 사라져 가는 기술이었으나 1980년대 극적으로 귀 환한 케이블 텔레비전은 더 많은 채널을 갖게 됐다. 17세기 유럽에 알려진 침술도 19세기 초에 한번 붐이 인 이후 천천히 쇠



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에서 전쟁에 동원된 말.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소련으로 진격 한 독일 군대의 말은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당시보다 훨씬 많았다. <휴먼사이언스 제공>

되하다 1970년대에 다시 등장했다. 어느 때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산업으로 발전했다. <휴먼사이언스·1만8000원>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문학·철학·미술·영화·경제·야구... 130권 책에서 길어올린 삶의 단상

불면의 등불이 너를 인도한다

장석주 지음

'문장노동자' 시인 장석주는 날마 다 읽고 쓰는 사람이다. 무엇보다 총 총한 책 읽기로 유명하다. 시인이 2만 5000여권 장서의 숲 에서 선별한 책들을 묶어 '불면의 등불이 너를 인도한다-장석주의 서재'를 펴냈다. 지난 2013년 봄·여 름·가을·겨울 사계절을 통과하며 읽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다. 언제나 그렇듯, 그의 서평집은 문 학, 철학, 미술, 영화, 경제, 야구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른다. 이번에 소개 하는 책은 130권이다. 각 글 말미에 는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적어 독서를 돕는다. 책은 20세기의 가장 빼어난 산문 가로 꼽히는 발터 벤야민의 '일방 통행로'로 시작된다. '한국 문학 평론의 정수를 꿰뚫고 우뚝 솟은 말의 성체, 그 봉우리의 위엄을 보여주는' 황현산의 '잘 표 현된 불행', 추곡은 철학이라는 말 과 함께 소개하는 마티아스 루의 '축 구화를 신은 소크라테스', 폴 오스



터의 '선셋 파크', 무라 카미 하루키 의 '채소의 기본, 바다 표범의 키 스' 등을 만 날 수 있다. 책과 관련 된 그의 다 른 저서처럼 이번 책 역시 단순한 서 평집을 넘어서 세상살이에 대한 단상 과 삶의 의미까지도 함께 엮여냈다. '윤구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 랑', '교보문고의 추억', '사랑이 어 떻게 변하니' 등 흥미로운 글들도 눈에 띈다. 참고로 2013년 그가 뽑은 올해의 책은 유승훈의 '부산은 넓다', 류신 의 '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', 김영 하의 '살인자의 추억', 강상중의 '도 교산책자', 나쓰메 소세키의 '나쓰 메 소세키 전집'이다. '이상고 모던 보이들', '마흔의 서 재' 등을 펴냈으며 월간중앙에 '장 석주의 일상 인문학'을 연재중이다. <현암사·1만8000원> 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새로 나온 책

▲당신의 선택은? = '당신의 선택은?' 시리즈는 각 분야의 최신 이슈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글을 비교해 읽을 수 있는 '쟁점과 토론'의 정수다. 미국 유명 대학 교수들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첨 예한 이슈 20여 가지에 대해 상반된 입 장을 지닌 논문, 칼럼, 연설문 등에서 각 두 편씩을 엄선하고, 각 이슈에 대한 배경지 식, 더 읽을거리를 덧붙였다. 1권 기업 윤 리, 2권 과학 기술, 3권 글로벌 이슈로 나 뉘져 있다. <양철북·각 권 3만원> ▲국가의 배신 = 실미도에서 세월호까 지,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부의 무능과 거짓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 는 점이다. 세월호 참사에서는 보고 오류 와 늦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,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'증 세 없는 복지'라는 난센스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핏수를 쓴 것이 문



제였다. 책은 국가에 속고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속고하 게 만든다. <인물과 사상사·1만3000원> ▲여왕벌의 소녀 = 청소년 상담으로 명망이 높은 로잘린 드 와이즈먼의 첫 번째 저작. 심대 소녀들이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, 남자들이 어떻게 경계를 짓고 부모와 관계를 맺 어 가는지 설명해준다. 저자는 책에서 평 범한 심대 여학생들이 어떻게 학교폭력, 따돌림, 성적인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지 매우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고 전 문가답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



시하고 있다. <시그마북스·1만5000원> ▲문학의 맛, 소설 속 요리들 = 세계명 작 문학 속의 상징적인 50가지 식사 장면 이 실제 요리로 되살아난다. 독서와 식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. 위안을 주고, 영양분을 주고, 회복시키고, 편안하게 하고, 그리고 둘 다 대부분의 경우 즐겁다. 문학과 요리라는 매력적인 두 장르가 감각 적으로 뒤섞인 이 책은 독자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긍정적 요소들을 제공할 것이 다. <한스미디어·1만3800원> ▲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결엔 사랑 하는 이가 없었다 = 눈 내리는 밤, 버려진 바닷가의 작은 파출소. 등장인물인 김 씨

와 파출소 직원, 사내는 창문에 긴 성에처럼 차갑고 불투명한 공 간을 서로의 체온을 빌어 훈훈하 게 채워간다. '시가 된 이야기'라 고 별명을 붙인 이 작품은 정확 히 말해 '시극(詩劇)'이다. 시극 은 대사가 시의 형태로 쓰인 희 곡을 말하는데, 산문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각각의 글에 라임과 운율이 살아 있는 문학적 장르다. <열림원·9500원> ▲사람을 얻는 프란치스코 리더십의 12 가지 비밀 = "저는 여기 아래 서겠습니다." 교황으로 첫 설교에 나서는 순간 다 른 추기경들보다 높은 연단에 서기를 거부 한 프란치스코 교황. 프란치스코 리더십의 강점은 '겸손함'으로부터 나온다. '사람을 얻는 프란치스코 리더십의 12가지 비밀' 에서는 교황의 이야기를 통해 혁신적인 리 더처럼 유능하고 배려심이 많은 '진짜 리 더'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. <매일경제신문사·1만3000원>

어린이 책

▲왕비의 붉은 치마 = 비운의 왕비 명성 황후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 낸 작품으로, 한국가톨릭문화상 아동문학 부문을 수상 한 역사 동화다.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온 이규희 작가가 작가 적 상상력으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우리 역사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냈다. <파랑새·9500원>



▲청국장, 풍국장 = 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난 뒤 할머니와 엄마가 청국장 식당을

하는 연화의 가슴 아프면서도 마음 따듯 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. 청국장 냄새 때문 에 풍국장이 되어 친구들에게 외면 당하다 가 다시 천국의 맛인 '천국장'이 된 청국장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. <소나무·1만원> ▲다문화 한국사 1, 2 = 한반도를 찾아 와 한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세계인들 과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물을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의 흥미진진한 이야 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. 책에서 선보

이는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한국사를 더 넓게 살펴보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. <살림프렌즈·각 권 1만1000원> ▲꼬마 셰프의 요리책 조리책 = 요리사 를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요리책. 어린이 혼자서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. 직접 셰프가 되어 보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키우고 미래에 대해 서도 깊은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다. <청어람아이·1만2000원>

영국의 헌책방 마을, '헤이온와이'를 가다

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개의 헌책방이 자리 잡고 있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다.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선언하고 나선 뒤로 총주국으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이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.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인 모두가 서점 주인이다.

책으로 못다한 이야기, 신문으로 채웁니다!

아이의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,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.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

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
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